

책의 해의 의미있는 마감을 바라며

올 한해도 다 저물어 간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망년회가 여기저기에서 열릴 것이고, 어떤 이는 술에 절어서 올해를 보낼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올해 하지 못한 일들을 반성하며 다가올 새해를 맞이할 것이다.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어떤 수필가 겸 대학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농친 기차는 아름답다"고 쓴 바 있다. 이 말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스러움의 표현일 터이다.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그 때를 아십니까'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에게 잔잔한 과거의 향수를 불러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출판계도 보수

적인 면을 벗어나 열린 장으로 치달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최근 한 일간지의 독자투고란에 기고된 한편의 짧은 글은 출판계의 보수성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같이 얼굴이 뜨거울 지경이었다. 그 글의 내용은 현재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사진이 70년대의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분명 1993년을 다 보내고 있는 시점인데도.

그 글은 이어서 실증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2차집단의 예(회사)"라는 제목의 사진에 70년대 회사의 풍경을, '사회발전 자원으로로서의 교육'이라는 제목의 사진에는 70년대에 유행한 장발을 한 학생들의 수업광경을 실는 식"이라는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교과서는 어차피 한 사회의 교육목표와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1993년에 1970년대의 사진을 '당당하게' 교과서에 실는 것은 '보수적'이라는 말과도 거리가 멀다. 오히려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는 말에 더 가까울 것이다. 독자투고를 한 사람은 글의 끝에서 "이런 식의 사진으로는 수업의 비효율성만 불러올 뿐"이라면서 "교육개혁을 위해서라도 이런 점을 하루빨리 고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그 필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1차적으로 이런 식의 사진은 '출판개혁'과 책의 해를 의미있게 마감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책의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 마당에 지난 1년 동안의 일을 상기하는 것도 출판인들이 해야 할 망년회의 한 순서일 것이다. 독자투고에 글을 쓴 필자—고교2년생—의 뜻과 함께한다면, 더더욱...

—이성수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현대 프랑스 지식인사회의 실상을 낱알이 해부함으로써 1981년 출간 당시 많은 스캔들을 낳으며 베스트셀러가 됐던 에르베 아몽과 파트릭 로트망 공저의 '지식관료들'은 제목이 암시하듯 현대 프랑스 지식인들이 일종의 지식권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어 흥미를 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대학교수, 언론인, 작가, 문학평론가 등 지식인집단의 실상을 대담하면서도 회화적으로 들춰내고 있는데, 주목되는 것은 '출판업자들'도 한 장을 차지하며 지식인집단의 중요 구성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출판사가 나름의 평판과 명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보다 많은 자본 ② 보다 굳은 출판사로서의 정절 ③ 재정적 타격을 보완해 주기에 충분한 자원(즉, 매력있는 출판도서 목록) 중의 하나를 지녀야 하는데, 가령, 쇠이유사는 자금보다는 정절을, 그라세시는 정절보다는 자금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갈리마르사는 자원이 충분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자금을 감추고 정절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다.

다음에 저자들의 '훌륭한 출판사론'을 발췌 소개한다. 출전은 원전의 앞부분만을 따로 번역한 '문예중앙' 1982년 여름호의 「현대 프랑스의 지식귀족들」(김연권 역).

하나의 훌륭한 출판사를 구별시켜주는 요인은 보다 명확하다. 그것은 단지 은행의 보증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하나의 훌륭한 출판사란, 하나의 스타일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데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일정한 방침이라든지, 미학적인 일관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저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책 출판의 동기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택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는 데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1930년대에 지드, 사르트르, 말로, 아라공 들에게 공통점이라곤 (단지 그들이 문학적으로 공히 우수한 작가군에 속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들은 모두 갈리마르 출판사를 통해 작품을 발표했다. 현대, 그 우수한 작가군이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출판사나 아니냐를 지칭하는 첫번째 표시가 된다. 즉, 출판사가 규합시켜, 계속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재능있는 작가의 수요와 다양성 말이다.

또다른 하나의 표시는(오늘날 같은 출판계 위기의 시대에는 극히 드문 예이긴 하지만) 일종의 긴축정책으로서, 수없이 많은 책자를 시장에 내놓아 요행히 그 책중의 하나를 건

지게 되길 바라는 식의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책은 그 자체로서 고상한 것은 아니다. 출판업자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산물, 즉 책의 범속화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들은 너무 종종 열려 있는 공간을 인위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유혹에 무릎을 꿇는다.

페미니즘 논쟁이 그렇기도 자꾸 되풀이될 성질의 것인가? 치졸한 작품들과 쓸데없이 되풀이되는 소설들이 빗발처럼 대중에게 밀어닥쳐 거부감마저 자극할 정도이다. 좌익측의 희망이 그런 범속을 떠는 데 있던 말인가? 녹음기처럼 되풀이되는 말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쓸데없는 출판물이 너무 많고 꼭 필요한 출판물은 너무 적다. 연속적인 기사 따위는 너무 많고 창의력이 풍부한 원고는 너무 적은 것이다. 훌륭한 출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지 않은 출판사를 말한다. 그리고, 여성문제나 정치문제가 사람들에게 흥미거리가 못되는 것은 불경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지도 않는 출판사를 말한다.

훌륭한 출판사란 결국 소수의 사람들, 즉 다른 식으로는, 그들의 지

식을 교환하고 가르치고 틀에 박히지 않은 인정받은 몇몇 전문인들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출판이란, 점성학자들이 '추측과학'이라 일컫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한 총서의 편집자는 한 작가 혹은 한 주제에 내기를 건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둘중의 하나에 현혹되어 무조건 도박을 하는 방식과는 또다른 것이다.

편집자의 기술은 우선 진단학적인 의미를 띤다. 그렇다고 교양이 있거나, 어떠한 원고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 위에 그는 일단 제공된 책 스승로가 그러그러한 판단의 지표들을 넘어서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별난 능력도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약간은 경직되고 파편치한 지식의 안목과, 결코 충족되지 않는 너그러운 안목을 동시에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출판업자에게는 돈주양 식의 헛헛증과 날카로운 명석성과, 고치기 어려운 신선함의 취미가 바로크 식으로 뒤섞여 있게 마련이다.

출판저널

통권 제140호 / 1993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蕙玉 李聖洙
 金重植 裴銀姬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銀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姬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
동 105-2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謙夏 安秉永
安輝濬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璫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映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奘鍾 鄭雲映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 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일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은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료 거처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